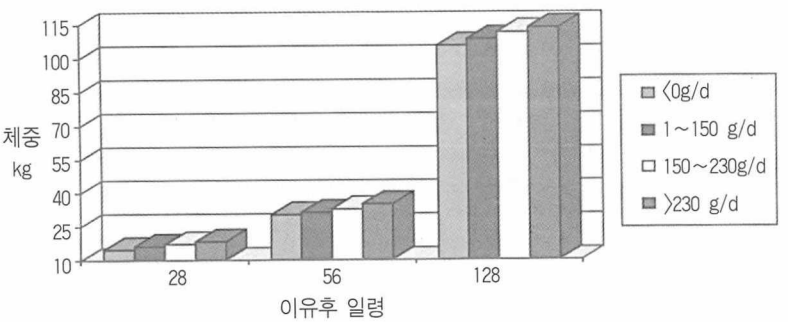
이유자돈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신 사양기술

존 카 박사
(영국 가쓰그룹 수의사)

1. 좋은 출발이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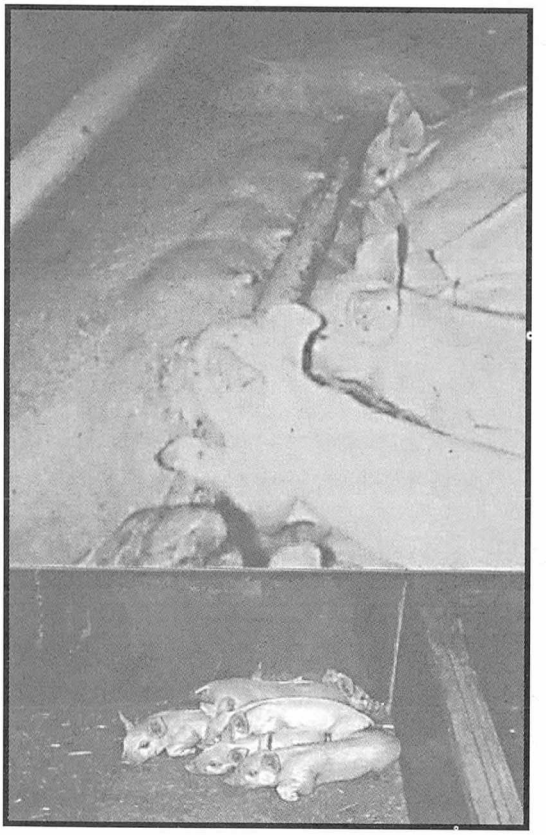
캔사스 주립대학의 연구결과 이유후 첫 주 동안 사료를 섭취하지 않은 돼지는 이유후 일당증체가 230g/일 이었던 돼지에 비해 이유후 128일령에 10kg이상 차이가 난다.



2. 이유전 행동(습관)

이유후 즉각적으로 이유전에 돼지가 요구했던 것 만큼 가능하면 많이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흉내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자돈들은 ① 각자의 급수기 ② 각자의 급이기 ③ 사료를 먹거나 물을 마시는데 경쟁을 최소화 ④ 따뜻한 액상의 사료를 먹거나 마실 수 있어야 한다. ⑤ 무리지어 젖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 ⑥ 매 1~2시간 마다 한번씩 젖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 분만틀에서 모돈은 매1시간 마다 젖을 주는데 24일령 경에 2시간마다 한번씩 줄 경우 이유를 준비하는 것



이다. ⑦ 유즙섭취는 자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돈이 섭취하는 시간을 결정한다. 급수기를 찾는 것도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⑧ 잠자는 것도 무리지어 잔다. ⑨ 잠자리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⑩ 자돈들은 개체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룹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자돈의 행동이나 습관들은 이유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야생 상태의 돼지는 12주령이 지나서야 이유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이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관리들

가. 급수

이유한 자돈들은 급수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반드시 훈련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수압은 최소 분당 500ml는 되어야 한다. 수압이 이보다 낮을 경우 자돈들은 물을 먹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유후 첫 1주 동안의 음수량이 24시간 이상 차이가 없을 경우와 이유후 첫주 동안 음수량이 1일 섭취량보다 더 많을 경우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료 섭취량과도 관계도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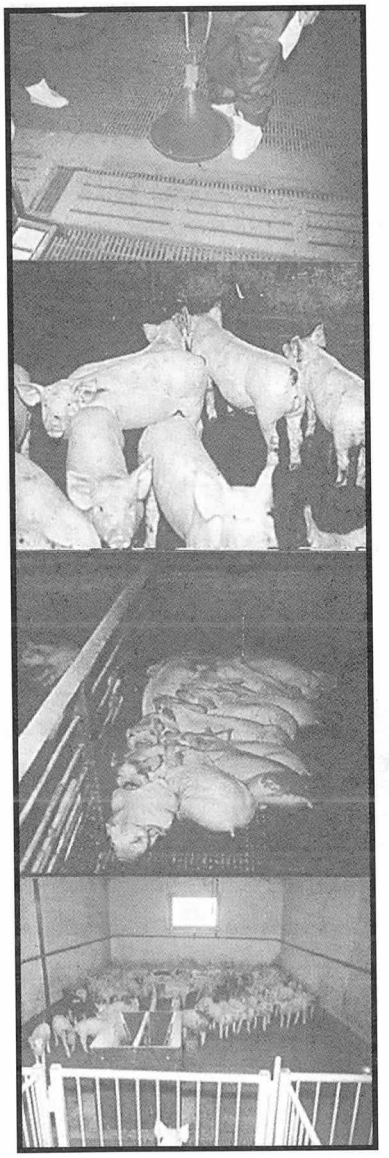
터키 급수기는 자돈들로 하여금 무리지어 물을 섭취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만약 터기 급수기가 균형이 잘 잡혀 있다면 허실되는 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 터키 급수기는 환돈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세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 급수기를 이용하려면 돈방의 공간이 넓어야 하므로 자돈방의 크기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자돈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돈군간에 층아리가 지게 된다. 만약 섭취량을 증대시키고 싶다면 물에 감미제 등을 첨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나. 공기

자돈들이 잠자는 모습이나 누워 있는 상태를 보고 자돈의 편안함 정도를 알 수 있다. 샛바람이 전혀 없는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온등, 보온매트나 깔짚 등을 이용하여 30℃의 온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슬러리 피트에서 돈사 내부로 가스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자돈사에 들어가자 마자 이유 자돈이 누워 있는 상태를 보고 바로 평가해야 한다. 산만한 관리자일 경우 샛바람의 확실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유후 3일간은 자돈이 급수기나 그외 설비를 찾을 수 있도록 불을 켜준다.

다. 바닥

돈사바닥에 연마제를 쓸 필요는 없다. 급이기



까지 갈때 무릎이나 다리에 손상을 일으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종돈으로 쓸 돼지의 경우는 중요하다. 사육밀도도 중요한데 너무 과밀사육하거나 저밀사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육밀도는 돈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체중 20kg까지는 두당 0.2㎡, 30kg까지는 0.3㎡가 필요하다. 올인/올아웃, 고압수세 및 소독은 돈군과 돈군 사이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석회 도포가 가능하다면 권장할만한 방법이다.

라. 돈군

돼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유 체중을 최대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축된 자돈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들 자돈들을 따로 키워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투약을 통해 위축자돈들을 사육한다. 이들 위축 자돈들은 정상적인 자돈들보다 더 길게 액상 입질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위축 자돈들 중 10%가 별도의 자돈 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들에게 좋은 사육시설에 적응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본 돈군에 합류시키도록 한다. 그러나 최소 체중은 18kg이상은 되어야 하며 주령은 1주령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절대로 새롭게 이유한 자돈군(체중 7kg)에는 합류시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체중 7kg의 자돈 면역체계는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사료 이유후 첫 5일간의 사료

가. 기호성

이 단계의 사료는 품질이 좋아야 하고, 유제품 함량이 높아야 한다. 사료의 보관 온도는 18℃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지대 사료의 경우 개봉했을 때는 언제나 밀봉하여 보관한다. 사료는 변질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나. 사료의 위생

사료는 보관을 잘해야 한다. 해충의 피해로부터 사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설치류의 오염은 살

모넬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유전 자돈들은 관리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 1~2시간 마다 유즙을 섭취했다(1일 12~24회). 모돈이 유즙 섭취시간을 결정했지 자돈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즙을 소량씩 자주 섭취했던 것이다. 몇몇 농장에서 새로이 이유한 자돈들에게 1일 8회씩 사료를 급여했으나 바로 적응했다. 그러나 정착되지는 못했다. 이것은 이유후 3~4일간 이유자돈들이 사료섭취가 확실해 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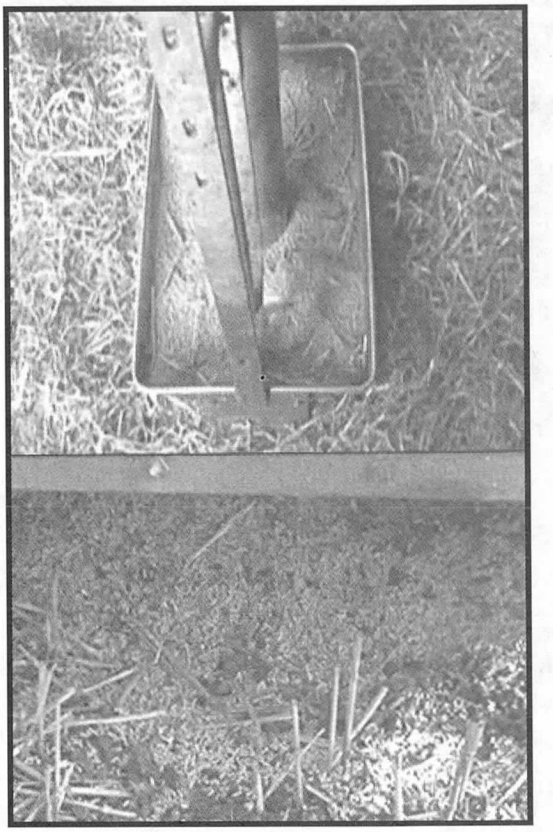
이렇게 잘 적응이 되면 첫 주 동안의 사료섭취는 최적으로 될 것이고 이것은 또 출하까지 10일 정도의 사육기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사육기간의 단축은 이유후 추가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유후 1주일 이후엔 1일 사료 급여 횟수를 2~3회로 줄일 수 있다.

다. 사료의 형태

자돈은 액상이나 죽상태의 사료를 좋아한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입질사료에 물을 타서 급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돈들로 하여금 사료를 '구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료를 급여할 경우 사료섭취가 낮은 자돈들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잇점은 있으나 별도의 사료급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방법은 급이기를 통해 사료와 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게하는 방법이다. 이유후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산성화제가 첨가된 사료나 위생적으로 깨끗한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마. 급이기 형태

이유후 첫 주 동안 모든 자돈들이 함께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급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7~10kg 정도 자돈은 목이 들어갈 공간이 7~10cm면 된다.



터기 급수기는 이유후 처음 3일동안 액상 급여가 가능하다. 길이가 긴 급이기는 사료섭취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자돈들이 사료를 섭취하면 점차 액상의 양은 줄이고 사료의 양은 늘려준다. 위의 〈사진上〉에서 보여주는 급이기는 한 예에 불과하다.

바. 사료 허실을 최소화

사료허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급이기를 잘 생각해 보자. 만약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져도 사료를 돈사 바닥에 그냥 뿌려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위의 〈사진下〉에서처럼 이유자돈들은 사료를 슬래트 바닥으로 흐뜨린다. 이것은 단지 쥐, 새나 파리 등을 농장에서 사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자료출처 : (주)선진 주최 「99선진 전국양돈세미나」 1999. 10. 5 쉐라톤 워커힐 호텔〉 양돈